

목포권

기초단체장 새해 청사진

정종득 목포시장

“기업 유치, 일자리 1만개 창출”

“21세기 해양·관광·물류·신 산업 중심도시로 인구 100만의 광역도시를 만들고, 국내외 자본과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 1만개를 창출하겠습니다”

정종득 목포시장은 새해 역점시책으로 일자리 1만개 창출·제 1의 교육도시와 제 1의 건강도시 건설을 꼽았다.

조선산업 클러스터 조성

올해 목포시는 국제적인 해양·관광 거점도시 육성을 비롯해 ▲북북·가거점 항만·물류 중심도시 건설 ▲원도심과 신도시의 균형 개발 ▲전국 최고의 교육·문화·예술·체육 중심도시 육성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사회 구현 ▲사남권 광역도시 건설 ▲변화와 혁신역량 강화 등 6대 전략적 분야를 추진한다.

정 시장은 “목포를 제 1의 교육도시·제 1의 건강도시로 만들어 경

쟁력있고 쾌적한 정주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목포항을 관광·레저 전향으로 개발해 국제적인 해양·관광 중심도시로 특화 개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새로운 성장 동력인 조선·세라믹·식품·신 재생 에너지 산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시장은 “대양동 일대에 세라믹, 해양·레저 선박장비 산업, 신재생 에너지 산업 등을 유치할 132만~165만㎡ 규모의 지방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라며 “현대 삼호중공업과 목포 C&조선 등을 비롯해 화원 대한조선과 지도 신

제1의 교육·건강도시 건설 안 중공업 등을 상호 연계하는 ‘사남권 조선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또 삼향천과 입암천 생태천 조성 공사를 내년까지 마무리해 시민들



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 철도 폐선 부지를 웰빙 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하당 장미의 거리와 같은 생태공원 기능을 갖춘 생태도로를 평화광장~버스 터미널까지 확대해 도시 친환경 생태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정 시장은 “목포 국제 축구센터와 필드 하키장을 차질 없이 건립하고

2009년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와 제 3회 전국 해양스포츠 제전 등 전국 및 국제규모의 스포츠 대회를 성공리에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주민 참여예산제’ 시행

이와함께 사남권 광역도시 건설과 관련 올해부터 무안·신안 지역 순회 합동 토론회와 공무원 간 교류 활성화, 통합 추진기구 구성과 통합에 따른 행정절차 이행을 준비해 본격적인 통합논의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정 시장은 “청렴 실현을 위한 건전한 공직문화 시스템 구축과 투명한 계약제 운영, 주민 참여 예산제를 적극 실현하고 지속적인 내부 혁신과 직원 교육 강화·찾아가서 봉사하는 행정으로 변화와 혁신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무안 동탄면 ‘세밀 이웃사랑’

일 복지회관에 점심방을 개설하고 독거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한편, 건강체조 교실과 노래교실 등을 열고 있다.

무안군 동탄면(면장 최승자)이 운영하고 있는 겨울철 농민기 프로그램이 지역주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동탄면은 매주 목요일 복지회관에 점심방을 개설하고 독거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는 한편, 건강체조 교실과 노래교실 등을 열고 있다. /최희중기자 chae@kwangju.co.kr

신안 ‘영농 폐기물 제로 운동’ 성과

지난해 폐기물 2,085t·농약 빈병 11t 수거

신안군이 전국 최초로 ‘영농 폐기물 없는 군 만들기 운동’을 전개해 성과를 거뒀다.

신안군은 지난해 폐기물 2천85t과 농약 빈병 11t을 수거하는 등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을 적극 전개했으며 6억 3천100만 원의 수거 장려금을 지급했다. 군은 당초 목표량을 720t으로 설정했으나 수거 장려금을 인상하고 민관, 유관기관단체가 자

참여하는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의 날’을 운영해 목표의 3배에 가까운 폐기물 수거 성과를 이뤘다.

특히 폐비닐 수거 장려금을 Kg당 50원에서 300원으로, 빈 농약 병도 150원에서 500원으로 대폭 인상해 청결한 농촌과 자원재활용, 농업인 소득으로 이어지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뒀다.

/\*신안=조원필기자 wncho@

청소년 쉼터 2곳

‘위탁 법인’ 모집

목포시 8일 사업설명회

목포시가 청소년 쉼터 2곳을 운영할 단체를 모집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청소년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면적 140㎡ 내외의 숙식 시설, 상담실, 사무실과 전문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위탁기간은 오는 4월부터 2010년 말까지이며 쉼터별 연간 1억 3천200만 원이 보조된다.

청소년 쉼터는 가솔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조기에 가정과 학교, 사회 등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시설이다. 시는 오는 8일 시청 회의실에서 응모 희망 법인(단체)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무안에 체험·관광형 ‘하늘백련마을’

백련대축제가 열리는 무안 회산백련지 주변에 전통 한옥마을과 농촌체험시설 등을 갖춘 ‘하늘백련마을’이 조성된다.

무안군 일로읍 산정·복용리 일대 6개 마을에 조성될 ‘하늘백련마을’은 지역관광자원 개발로 정주·생활·소득기반을 강화해 농업 경쟁력 확보와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무안군은 우선 이곳에 전통과 역사성을 토대로

마을별 특색있는 컨셉의 테마체험 마을과 관광·환경 친화 마을을 조성할 계획이다.

무안군은 백련관광지 수 진입로 일대에 꽃길 보행로를 만들고 부대시설을 갖춘 ‘백련흑공마을’ 조성 등 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또 전통 한옥마을 등 랜드마크를 조성하고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민박 및 농수산물 직거래 판매장을 설치해 관광과 체험이 가

郡, 2009년까지 128억원 투입

회산 백련지 일대 6개 마을에 농촌 전통·테마 체험마을 조성

농한 가족형 체험공간이 조성된다.

특히 독일 명물인 ‘클라인가르텐(Kleingarten : 작은정원)’을 벤치마킹해 수려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작은 정원을 꾸며 주말농장, 휴양, 취미활동 등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사업도 추진된다. 하늘백련마을 조성사업에는 2009년까지 행정자치부 지원금 22억원을 포함해 총 128억원이 투입된다. /최희중기자 chae@

태백산 눈꽃 기차여행. Includes a table with departure times and prices for various routes.

정동진/함선등글 기차여행. Includes a table with departure times and prices for various routes.

개성관광 기차여행 일정. Includes a table with departure times and prices for various routes.

대인동삼일부동산. Real estate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s.

금부부동산건설. Real estate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s.

상무랜드공인중개사. Real estate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s.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Real estate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s.

한일지도판매(주). Real estate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s.

부자퇴세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Real estate advertisement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s.